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

도서관문화 12월호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2004년 10월 4일(문화관광부회의실)과 10월 22일(국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의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와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둘째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낸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을 이용했으며, 두 번째 자료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었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행된 “학교도서관정책자료집”(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제안 자료집”(정병국 의원)도 참고해 볼 만하다. ■ 편집자 주

2004년도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¹⁾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부

일시 : 2004년 10월 4일(월)
 장소 : 문화관광부회의실

(10시 3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이상호** 위원 출판의 공공수요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

렸습시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18개 중앙정부부처의 3년간 도서구입 총액은 7억6800여만 원이며 1년에 2억5600여만 원으로 1만5500여 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서구입 상태를 전문도서를 중심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한다면, 2003년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 중 전국 공무원의 숫자가 91만 600명에 달하며 1인당 한 권의 도서 구매로만 현실화할 경우 전문서적 출판시장에 123억 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23억 원 규모는 단행본 기준으로 1000권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힘겨운 현재의 출판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부가 자체 도서구입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부처, 산하기관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각종 **도서관** 이런데서 전문서적들을 집중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고사 상태에 있는 전문서

1) 전체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가 언급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내용 흐름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출판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원칙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호** 위원 향후 일반서적은 시장원리에 따라 서점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전문서적은 도서관이라든가 관공서 등 공공구매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병국** 위원 다음은 장애인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수는 현재 135만 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인 400만 명을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과 관련된 점자도서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자책이 일반 도서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관께서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과 똑같은 책을 비교하면 5배에 달합니다.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책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장애인, 특히 점자도서관을 국립화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에 점자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서른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교류가 안 되다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있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만들었으니

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윤** 위원 저는 국민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창의한국, 5대 문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바탕은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독서가 국가경쟁력이고 국정지표의 방향이라고 늘 말씀하시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문화관광부 예산에 독서진흥 항목이 없고 또 최근 2년간 독서실태 조사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관님 오시기 전 최근 2년 동안 문화관광부가 주관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회의나 세미나를 했다든지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최근에 나온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윤**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최근 2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군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 법무부, 국방부 등의 부처들과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독서를 전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윤** 위원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2003년도에는 99억 7000만 원, 2004년도에는 106억 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 도서구입비 지원이 타당한 방식으로 없어지게 됩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금년도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액은 약 134억 정도 됩니다. 다마는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금년도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도 베이스 정도는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윤 위원 그런데 문광부의 독서진흥정책이 결만 번지르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서관구입비를 중앙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독서진흥이 불가능한데 왜 탐다운 방식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저희들도 그 예산편성 체계가 바뀔 시점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적극 개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처와의 문제입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기본적으로는 예산당국과의 문제입니다.

■ 김재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윤 위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환경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을 하나 짓는데 건립비만 40억에서 50억 내외가 듭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도서관을 지어보자 이래 가지고 생활 밀착형 즉 말해서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쪽의 유휴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구입비에 한 3000억, 리모델링비에 몇 천 억 해서 1개관에 1억 정도 드는 작은 도서관을 짓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권기금 25억 가지고 25개관을 짓습니다. 이것은 독서 기능을 포함해서 주5일

제와 관련한 자녀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까지, 자원봉사자와 공공도서관을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1년까지 750개관 확충하는 것 플러스 1개관당 1억 정도 드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25개관을 연내에 오픈할 것입니다.

■ 김재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도서관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독서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염두에 두서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점자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건립과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가 앞서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진흥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 김재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 부분을 쪽 검토하다 보니 법을 어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에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에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정한 날은 199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행정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00명, 2001년 108명, 2003년 143명,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법은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시 30분 감사 종료)

2004년도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장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 개시)

■ 김재윤 위원 학교에서도 문제야로 내쫓겼던 에디슨이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은 책이었습니 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책과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한 권의 책이 그리고 도서관이 나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위대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 김재윤 위원 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선진국과의 지식격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일수록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즉 창의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 김재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독서진흥예산 부족하고, 독서를 진흥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하고,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의 협력도 부족하고, 도서관 활성화 부분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방송

국의 독서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독서진흥에 나서고, 진정한 의미의 창의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교육부 그리고 정부부처 내에서 또 방송국과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독서의 효용성에 부분별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김재윤 위원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입니다.

디지털 사회를 앞당기고 정보사회를 앞당긴 미국이 내세우는 것이 책 읽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것이 곧 창의력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사회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그 어느 부분보다 더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전개해야 할 일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윤 위원 정부의 정책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창의한국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창의한국 보고서에 보면 독서진흥에 대한 부분은 한 챕터(chapter)도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문화강국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 김재윤 위원 실제로 도서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 프로그램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도서관 업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구입비를 증액하고자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서라는 것은 국민 일반 사이에서 민간운동으로 또 출판계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지 어느 특정부서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관권...

■ 김재윤 위원 그러면 창의한국을 뒤로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독서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 김재윤 위원 독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독서진흥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독서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 김재윤 위원 독서진흥정책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전문인력이나 정책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 부처에 예산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 김재윤 위원 독서진흥정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독서라는 것이 문화관광부만이 독서진흥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일반에서 일어나 주어야 될 운동이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독서운동을 장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분배를 통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서,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가 된 것이 바로 도서관 독서진흥책에 의한 것입니다.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미경 김재윤 위원 지적은 문화관광부 안에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장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윤원호 위원 작년 국제교류재단에서 정부보조를 받아 각국 박물관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 실태를 파악한 것이 약 4만여 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약탈 문화재의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어 약 40만 점으로 추정되는 약탈 문화재 중 90%는 실태 파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프랑스가 반환하겠다고 했던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가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지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 윤원호 위원 그런데 지난 15일 파리교민신문인 유로꼬레와 우리나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이 국립도서관의 자료실장이 지난 20년 동안 도서관의 수집품을 훔쳐 팔아먹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297권의 우리 외규장각 도서는 안전합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해 듣는 바로는 보관상태는...

■ 윤원호 위원 15일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는 민간대표의 협상에 한계가 드러나서 정부차원의 교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원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99년인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들려준 외규장각 도서 2권에 대해서 한국의 고서적을 돌려주는 것은 프랑스 대통령이 절도 행위

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던 이 도서관의 자료실장이 -미스텔 가렐이라는 사람이 자료실장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자료를 빼내서 팔았다는 신문 보도입니다. 한 번쯤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들이 불타고 있을지 도난을 당할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본부나 외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환수국, 또는 최소한 조사국이라도 만들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약탈 문화재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등과 대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병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무료신문시장의 실태에 관한 정책보고서, 효율적 해외문화홍보를 위한 정책제안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광부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

이 많이 걸려서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 정병국 위원 2004년 국감 야당 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제가 점자도서관과 관련해서, 장애인도서관과 관련해서 자료집을 냈고 그것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최소한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요약하고 내용이 뭐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 종료)

2004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요약²⁾

- 2004. 10. 문화관광부 -

Q.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 18세 이상으로 제한(이경숙 위원)

- A. • 도서관이용규칙을 개정하여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춤.(2004년 3월부터 시행)
• 학위논문관을 어린이청소년 전용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임.

Q.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관으로 전략(강혜숙 위원)

- A.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연계하여 장서확충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공부방 이미지타격을 위해 노력함.

Q.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강혜숙 위원)

2)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정리한 것임.

- A. •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문화핵심기관으로서 정보강국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2005),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2006),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2008)등 연차적으로 추진 중임.

Q. 공공도서관이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혜숙 위원)

- A. • 도서관이용자 모임, 소식지 발간 등 지역사회 주민과의 밀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Q. 도서관 정책의 단일화를 위한 부처간 업무조정 의견(강혜숙 위원)

- A. •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도서관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장기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Q. 전문 사서직원 충원관련 제도 개선 방안(강혜숙 위원)

- A.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별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6개월)을 연구·개발 중임.
 • UNESCO가 정한 봉사인구에 따른 배치기준(2,500명당 전문인력 1명)을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할 계획임.
 • 도서관 관련학과 졸업생의 인턴직원 채용을 지자체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까지 확대할 방안을 적극 검토

Q. '종합적 독서진흥책'을 전문가 및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수립할 의사가 있는가?(김재윤 위원)

- A. •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책읽기운동 주도, 각종 도서관과 민간단체 독서진흥 활동 후원 및 매년 독서진흥 유공자에 대한 독서문화상 시상 중
 • 현재 진행중인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계, 독서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범국민독서진흥시책 수립·추진

Q. 점자도서관 국립화와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정병국 위원)

- A. • 현재 23개 등록점자도서관의 운영 지원,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편의시설 및 기기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시각 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및 원문 DB 구축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중
 • 향후 공공도서관 장애인열람실 설치(현재 43관) 확대, 장기적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 설치를 통한 점자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2004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요지³⁾

- 2004. 10. 국립중앙도서관 -

(2004년 10월 19일(화),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소속기관 감사시)

〈강혜숙 위원〉

Q. 고서복원 및 보존관련

- A.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전적문화재를 비롯 族譜, 文集, 地誌, 古文書, 古地圖 등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간행된 고전 자료 257,666책을 소장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훼손된 고서를 전통적으로 수리 복원하는 작업인 '배접'을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에 4,106장(99책), 2003년에 3,006장(120책)을 복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 현재 1,324장(70책)을 복원 완료하여 보존하고 있음.
- 전적문화재인 고서를 수리 복원하는 일은 오랜 경험을 쌓은 장인의 솜씨가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으로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기술자는 없으나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배접장'으로 지정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98년 대비 2004년 예산은 약 3배가 증액되었으며 보존인력충원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여 일반서의 보존 전문인력 2명을 이미 충원하였고 앞으로도 고서 보존인력 충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Q.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간행물편찬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향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A. • 해당 위원회의 업무성격에 따른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식과 경륜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향후 위원회 위원 인선시 더욱 많은 여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강혜숙·김재윤 위원〉

Q. 국립중앙도서관의 2004년도 교육실적이 전국 사서직수의 8%인데 다양한 관종에 있는 사서들을 위하여 더 많은 사서교육 대책과 사서직을 창의적인 전문가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주제별 전문사서제 추진상황, 향후 연차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A. • 우리 도서관은 사서직 공무원을 연수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직 공무원 재교육훈련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임. 이에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과정이 금년말에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관종별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제한된 우리 도서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 나갈 예정임.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이 학부중심으로 되어있으며, 사서직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순환근무 배치되었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제가 시행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 문헌의 수집·보관 등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부터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 우선 1단계로 2004년 10월 하순부터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사서들을 재교육시키고, 향후 장기적으로 분야별 전문가(석·박사급)를 채용하여 사서자격을 획득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 시행할 계획임.

〈고흥길·손봉숙·안민석·이경숙·이광철 위원〉

Q.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8세미만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규칙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낮출 의향은 없는지?

- A.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이용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음.
-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 보존을 통한 연구 지원이라는 설립목적과 외국 국립도서관의 예에 따라 자료이용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년(등)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고생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을 이용시키고 있음. 향후 인터넷 자료예약 신청이나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관의 자료이용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규칙세칙 개정과 함께 광범위한 홍보를 통한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20억원 확보와 함께 금년 2월부터 어린이·청소년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수집 자료를 분석 실시하였음.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견 수렴과 연구용역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05년 10월중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신설·개관할 예정임.

〈김재운 위원〉

Q. 독서진흥 시책의 종합적 장기적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방안은?

- A.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6~49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독서자료 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생활화’ 등의 시책을 강구·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독서진흥 시책 강구는 국가의 정책사항으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국민독서진흥’ 사업에 후원, 포상 등을 지원하고 있음.

Q. 국내자료 납본 통계 및 출판 통계에 대한 대책

- A.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도서·연속간행

물·음반·비디오물 등을 제출 받아서 국가문헌으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매주 인터넷 주보 서비스 및 한해동안 납본된 자료의 서지사항을 수록하여 납본통계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정부기관 및 각종 도서관에 배포하여 국내자료 납본현황파악 및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국내출판사현황, 출판자료발간 현황 등을 수록한 『한국출판연감』을 유일하게 발간하고 있음.
- 앞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납본목록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출판 통계자료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으며,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통합 발간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음.

〈노웅래 위원〉

Q.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서의 보관장소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 A. • 해외 소재 한국관련자료는 그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 특히, 미국 NARA(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는 미국 정부에서 생산된 100만개 박스에 30억 쪽의 방대한 문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관련문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Library of Congress(의회도서관) 등 미국 내 173개 기관에서 한국관련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일본에는 宮内廳 書陵部에 4,678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東洋文庫에 5,054책 등 52개 기관에서 54,000여 책의 고전적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GHQ/SCAP문서 중 약 9만매의 한국 관련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중국에는 遼寧省圖書館 등 32개 기관에서 8,600여 책 및 대만에는 國立中央研究院 史言語研究所 등 4개 기관에서 한국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이외에도, 프랑스에는 동양언어문화학 교도서관 등 4개 기관에서 2,000여 책을, 독일 바이에른 국립도서관에 700여책, 러시아에는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 고전적 및 한국관련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Q. 해외 사료수집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이며, 그동안 지출은 얼마나 하였는가?

- A. • 해외 자료수집을 위하여 계획된 예산은 자료수집비, 인건비, 국외여비 등을 포함하여 총 4억5천만원임. 2004년 9월 현재까지 미국 NARA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문서 중 미국 공군본부의 공군 계획안 파일 중 한국전쟁 당시, 한국영공에 대한 상황보고서 등 약 5만매의 미공군본부(RG341)문서를 비롯하여, 한국의 경제상황, 농업정책 등 전반적인 농업 부문 한국 관련 현황 보고서 등 외국농업부(RG166)자료, 미 태평양 함대 총 작전사령부의 중간 평가서 등 해군부 자료, 미 재무부 및 상무부 문서 중 한국관련문서 등 총 8만 매 정도를 NARA에서 수집하였고, 직원 1명이 장기 파견되어 자료를 조사하고 있음. 또한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서 조선금강산대관 등 고전적 140종 379책을 영인 수집해옴으로써 9월말 현재까지 약 2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음.
- 향후, 미국에서는 NARA소장 한국관련문서를 계속 조사 수집하는 것을 비롯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LA)의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에 소장된 진희섭문고 등을 수집할 예정

이며, 일본 소재 대마도 금강원, 대만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 등 희귀 고전적을 조사, 수집할 예정이다.

Q. 사료수집보존협의회 구성 후 통합목록시스템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해 만든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 2001년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국내 8개 관련기관 중심으로 사료수집보존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매년 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자료 수집실적과 당해연도 자료수집계획에 대한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관련기관간 자료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있음.
- 2004년 3월 협의회 회의에서 웹을 통한 수집자료의 공동이용과 중복수집 방지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관련기관간의 목록 표준화와 통합목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올해 6월, 8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각 기관의 시스템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지금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이 시스템은 2005년 3월 오픈할 예정임.

〈손봉숙 위원〉

Q. 디지털도서관 건립과 관련 관내 건축해야 할 이유, 향후 지방국립도서관에도 건립추진 계획은 있는지, 시설의 지하편중,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 등에 대한 대책은?

- A. • 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곳(On-Line과 Off-Line의 동일 관내)에 위치해야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전문기관(KDI 등)의 연구결과로서 도서관 인근 및 관내를 검토하게 된 것임.
- 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상으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므로 지상 공간은 이용자에 대한 다른 서비스공간과 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여타 시설 배치계획을 지양한 것이며(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에도 환경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최소화하도록 충고를 엄격히 제한), 지하공간은 2020년까지는 도서관 장서수장 능력의 한계에 따른 부족한 書庫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었고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자료 보존기능으로 전환되며, 문헌정보 자료는 제3의 시설을 재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주차장 문제는 도서관이라는 기능과 환경을 감안하여 기존 지상의 주차공간을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 출입이외에 대폭적으로 축소시켜 새로 짓는 디지털도서관 지하에 배치토록 하면 오히려 주차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며, 유휴공간은 녹지로 확장·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디지털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인터넷상으로 자료 등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것이 주된 시스템이므로 지방에도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향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하겠음.

Q. 야간도서관 운영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관장의 견해와 향후 실시계획은?

- A. • 야간도서관 개방 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 제공과 원문데이터베이스·국내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Web DB) 제공 및 전문사서의 참고상담, 자료예약서비스, 우편복사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유·무선 랜 시설, 노트북 시설, 자료검색 PC, 원문정보이용PC, 원문정보이용PC 등을 설치하여 이용시키고 있음.

- 야간연장 개방은 주간에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 자료 수집과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야간개방을 원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도서관 이용기회 확대 및 자료이용 편의제공을 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연장 운영하여 양질의 이용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심재철 위원〉

Q. 미납본 자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 A.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3조3항, 제54조1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제출하지 않을 때는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제재보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납본을 촉진하고 적시에 자료가 확보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적 제출기간(30일) 초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 납본을 통한 자료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발행이 파악된 자료는 미납본 자료추적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모두 납본을 받아오고 있음.
 - 현재 미납본 자료추적조사는 교보문고 판매목록, 주요일간지 신간소개목록, 출판관련기관인 출협, 잡지협회, 전문신문협회 등과 연계시스템 운영과 망라적 수집을 위해 45년 이후 KOLIS-net, KERIS 등 소장자료 검색, 미소장 자료색출을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 자료납본 제출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출판사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무가지와 유가지 자료의 구분, 개인과 단체, 또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감하고 형평성 있는 과태료부과를 통해 자료납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우상호 위원〉

Q.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석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에 지금도 존재하는지 검토바람.

- A. • '국민 독서교육의 전당' 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높이 3m짜리 표석이 설치되어 있음.
- 이것은 도서관의 준공일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1988년 5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준공 훨씬 전에(전 대통령 재임 기간) 미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도서관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이 되어 줄 것을 염원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임.
 - 동 표석과 유사한 조형물들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것에 대한 처리는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Q. 홈페이지 운영실태-국립민속박물관이 7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중국어 사이트를 2가지(간체중문, 번체중문)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 A.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른 언어의 사이트(독어, 불어, 스페인어 등)로 확장과 기존 중국어 사이트도 2가지(간체중문, 번체중문)언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향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시 적극 반영하여 대민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Q.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상당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A.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03.5.29공포)이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서관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동법에서 규정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측정치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음.
- 다만, 디지털자료실 등의 경우 유지기준의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최근 시설 개·보수에 따라 기준치(120 $\mu\text{g}/\text{m}^3$ 이하)에 가깝게 측정된 바 있어, 금년 중 동항목에 대해서 재측정하여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현재 유지기준항목 중 법적 기준에서 제외된 총부유세균(CFU)도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음.
 - 앞으로 도서관 각 자료실 및 서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기순환을 위해 환기시스템 등의 보완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검출 수치를 최대한 낮추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이계진 위원>

Q. 도서관 근로자의 휴일 휴무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거주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방문 없이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휴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국회도서관과 격주 휴무 방안의 협의 용의가 있는지?

- A. • 주5일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개관으로 인한 부족한 근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일용직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요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익일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인턴사원, 시간제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종합목록DB 1,500만건, 목차정보DB 97만 책,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해결된 자료 14만 6천 중,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자료 12만 4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 거주자 등이 도서관의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음.
 - 국회도서관과의 격주 휴무 실시는 국민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력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도서관과 우선 협의토록 하겠음.

<이광철 위원>

Q.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 A.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설계·시공 등 공사관리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 현재 건립 공사에 따른 기본계획(지질조사·측량 등) 및 입찰안내서(설계지침) 작성을 전문기관(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중이며, 용역이 완료(2004. 11월 말 까지)되면 건설교통부(중앙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요청할 것임.

-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규모를 확정(2004. 11월 중)하여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12월 중순경)를 한 이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설계실시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이재오 위원〉

Q. 도서관 정책기능 이관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 대책안과 공공도서관의 일원화 등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서직 임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A. •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집행기능 이관 추진에 따라, 현 직제를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기능 이관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향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관련 정책업무를 인수할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업무 인수팀을 구성하여 인수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은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지도·지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서직 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음.

Q. 국가문헌의 망라적인 수집 대책은?

- A.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최후 보존기관으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7조)에 의거, 국내출판자료는 납본 및 기증 수집을 통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1980년대 이후 매년 구입 및 영인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음.
- 현재 고구려 등 삼국시대 간행 필사된 고문헌 자료는 전하는 것이 없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고문헌 자료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호암미술관 소장 『신라백지 물서대방광불화엄경』 등 극히 몇 점만이 현전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고문헌 자료도 이미 발굴된 자료는 국보 등 문화재로 지정 받아 각 기관 및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음. 따라서 고려시대 이전 고문헌 자료는 극히 소수만이 현전하고 있음.
 - 중국의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출판된 자료는 그동안 없었으며, 최근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출판된 자료 11책을 구입 중에 있음.
 - 향후 우리도서관이 국가문헌의 최후 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내출판자료의 납본강화는 물론, 매년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해외소재 한국관련 고전적 및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별 현지 조사원을 활용, 향후 10년간 87개 기관 소장 고전적 78만여 책과 NARA 등 국외 국립문서관에 소장된 한국관련 문서자료를 조사,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용책 수가 줄어드는 사유 및 개선대책은?

- A. • 이용자 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이용자의 자료의 이용책 수가 줄어들고 있는 요인은 그동안 대부분 책지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자료유형의 다양화, 자료의 원문DB 또는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 매체변환 자료의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앞으로 이용자들이 원문 DB 등 각종 매체변환 자료와 함께 책지형태의 자료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및 각종 도서관 발간서지 등에 신간자료 안내 및 소장자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서관자료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음.

〈이재응 위원〉

Q.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진국 수준의 장서수 확보방안

- A. • 2004년 9월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총 장서량은 505만여책으로 외국의 주요 국가대표도서관과 비교하면 미국(12,700만책), 일본(1,607만책), 프랑스(3,580만책), 영국(9,252만책), 러시아(2,247만책), 싱가포르(782만책) 등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며, 중국(2,311만책), 포르투갈(250만책), 터키(170만책) 등 중진국과는 적거나 혹은 다소 많은 수준임.
- 금년말까지 510만책의 장서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도서관에서는 향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개정하여 전자출판물을 비롯한 국내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납본을 통해 망라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며, 또한 외국에서 발간된 최신 주요 학술자료를 전자매체는 물론 각종의 다양한 매체의 구입, 교환 수집은 물론, 외국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자료, 한국관련자료를 망라적으로 영인 수집해 나가겠음.

Q. 인문·사회과학도서에 비한 자연과학분야 도서구입의 부족에 대한 대책

- A. • 일반적으로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과학분야 보다 학문의 특성상 발전주기가 매우 빨라 제공되는 자료 또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첨단과학인 전기·전자공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자연기술 과학분야 자료 중 개론서 및 기본참고용은 일반도서 중심으로 수집하고, 변화되는 최신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는 Web DB, 전자저널 등과 같은 온라인출판물을 중점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2005년부터는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분야의 전자출판물이 확대 수집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자료확충계획(2005)'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임.

〈정병국 위원〉

Q.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 A. •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도 시각장애인용 국가 전자도서관을 개발하여 2003년 1월부터 정보소의 계층에 대한 시각장애인 사이트(sigak.nl.go.kr)를 서비스하였음.
- 시각장애인 원문정보 DB구축은 2003년 시각장애인 대학교과과정의 기본 학습서를 구축대상으로 1,430책 521,121면을 구축하여 2004년 3월부터 서비스하였으며, 2004년에는 900책 306,000면 원문정보 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 원문DB구축에 앞서 시각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를 모시고 원문DB 구축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단체들이 소셜류 등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DB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특례입학생들을 위한 DB는 거의 희박한 상태이어서 수학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과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학생이 볼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 정보가 구축되기를 희망하였음.

-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어렵게 대학을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문정보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시각장애인 원문DB 구축대상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장애인 특례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과를 대상으로 자료를 추천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표준안인 WCAG1.0(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을 기반으로, 수차에 걸친 관련단체와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하여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도 화면 읽기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국가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 또한 시각장애이용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서비스중인 자료검색 및 원문정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방에서 편리하게 검색과 원문정보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시스템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원-스톱 사이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대상 원문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기 구축 원문정보 DB를 점역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추가, 수시로 관련 시각장애인 단체 및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정청래 위원〉

Q. 도서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대책

A.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 도서관 명칭 변경은 법상 규정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2003년에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칭 변경한 도서관에 대해 자료구입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고, 2004년에는 명칭을 변경한 도서관에 차등 지원한 바 있음.
-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관 명칭 사용을 전제하고 건립 지원하고 있음.
- 도서관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임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공도서관 일원화, 전문직 관장 보임, 운영전문인력 확충 등의 총체적인 도서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Q.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부족 문제는?

A. •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반영된 20억원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8억6천만원 정도 계상 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천영세 위원〉

Q. 도서관 정보화 사업 표준화 - 통합검색 시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의 경우 원문보기를 위하여 참여기관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은?

A. • 국가전자도서관 검색서비스는 표준Z39.50검색과 메타검색 방식으로 7개 참여기관의 목록, 목차 및 원문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목록정보검색은 국회도서관도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표준Z39.50검색 지원 방식으로 사이버 서비스를 운영중인 국회도서관은 검색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목록검색만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통합검색 서비스 지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정보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 차례 원활한 원문서비스를 위한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운영관련 공문 등을 통하여 협의 중임.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회도서관에 원문검색을 위한 메타검색 서비스 방안 업무협조(2004. 4.19.~. 협조공문) 및 국가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4. 6.30.~11.27.)등을 통하여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 통합검색의 확대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음.

Q. 도서관 정보화 사업 표준화-참여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원문부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 표준화 부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대표기관으로서 협의 및 조정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 A. •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별로 구축한 원문정보는 원문소장 기관별로 저작권과 과금 처리방식이 달라, 현재 각 기관별로 원문부여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저작권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원문부여를 따로 구축·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원문구축과 목차의 표준화 방안은 국가전자도서관의 참여기관이 표준화(안)을 협의하여 신규 DB 구축 시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원문 저작권 관련부분은 참여기관별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 기관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향후 미래형 국가전자도서관 검색서비스의 목표는 실질적인 안방자료실 구현 기반 마련에 있으므로, 현재 참여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원문포맷, TOC, 테이터전송방식, DRM구현 등)을 하나의 원문부여로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작권관련 사용자인증/과금 등과 관련된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원문부여의 단일화 방안 연구를 위한 2004년도 국가전자도서관 연계확장 사업(2004. 6. 30.~11.27.)을 토대로 향후, 국가전자도서관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내 수립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향상에 노력하겠음.

Q. '어린이디지털도서관' 부지확보를 위해 예산도 없이 제안한 이유

- A. •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단순히 가상공간의 디지털도서관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 디지털 자료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수집, 정리, 보존시설의 필요성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디지털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등을 위한 이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도서관의 당초 계획(스페이스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다만 서초구청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동 구청에서 제안하기를 어린이디지털도서관(약 1,500평)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 국립중앙도서관은 동 건의안에 대해서 서초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주민대상 설명회시 이 안에 대해서 알려준 바 있음.
- 이와 같은 계획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상승 등의 사안 발생으로 대상 부지 변경 및 학위논문관을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 추진 등으로 인하여 현행 디지털도서관 건립계획에서는 포함하지 않게 되었음. 